광주시, 탄소중립 실천 활동 본격화…시민이 앞장선다

시민실천단 '빛고을 넷제로 프렌즈' 출범…시민 100명 자발적 참여 SNS 홍보·서약 독려 등 실천 문화 확산…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지급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자발 적인 실천활동에 나선다.

광주시가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유도 해 시민들 스스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실천문화 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함께 탄소중립 시민실천단'빛고을 넷제로 프렌즈' 발대식을 열

광주시는 발대식 이후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 실 천 활동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고상연 광주기 후에너지진흥원장, 최지현 광주시의원, 시민실천 단 100여명, 관계기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을 통해 공개 모집한 광주시민 100명의 '빛고을 넷제로 프렌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참여형실천단이다. 이들은 일상 속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실천에 나선다. 당장 이날 현장에서는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실천방향이 공유됐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에너지 절약 부문 탄소중립 교육, 탄소중립 슬로건 및 실천의제 도출, 탄소중 립 정책 아이디어 제안, 탄소중립 선언문 작성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은 시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함께 나눴다.

발대식 이후, 시민 실천단은 도출된 실천 의제를 중심으로 생활 속 실천 활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시민 서약 독려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에너지전환, 녹색소비, 친환경 교통, 자원순환, 흡수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활동을 펼쳐 광주시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시민 파트너로 참 여시킨다는 것이 광주시예 계획이다.

광주시는 실천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 활동자에게 활동증서와 1인당 15만원 의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하고 향후 탄소중립 관 련 정책 수립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45 탄소중립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 장 큰 원동력이 된다"며 "'빛고을 넷제로 프렌즈' 가 시민 주도의 탄소중립 실천의 기반이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열린 '전복 소비촉진 판촉행사'에 참석, 주요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복 먹고 힘내세요"…전남도, 국회서 특별 판촉행사

최대 20~30% 저렴…전복꼬치·물회 등 다양한 메뉴 소개

전남도는 13일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가 지원을 위한 전복 특별 판촉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우원 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서삼석·전현희 최고위원, 최민희 과방 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지원·손명수 국회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신우철 완도 군수 등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행사에서는 전복꼬치•전복물회•전복비빔밥 등

전복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전복어목· 전복차우더 등 가공제품도 홍보하는 한편, 수협중 앙회가 지역 생산어가에서 직접 매입한 물량을 시 중가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판촉행사가 전남산 수산물 소비로 이어져 지역 어민에게 실질적 도움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무제한 적셔브러!" 광주 비어페스트 열린다

광주관광공사, 28~31일 DJ센터

광주 최대 규모 오리지널 맥주축제인 '2025 비어페스트 광주(Beer Fest Gwangju 2025)'가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 광장에서 열린다.

13일 광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맥주 축제는 "불취무귀(不醉無歸), 무제한 적셔브러(BREW)!"로 진행된다.

조선시대 정조가 "백성들이 근심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선정을 베풀라"는 의미로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한다"고 한데서 착안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비어페스타 광주 입장료는 주중·주말 동일 1만 7900원이며, 티켓링크를 통한 사전예매·현장결제로 운영된다. 사전예매는 티켓링크에서 '비어페스트광주' 또는 '광주맥주축제'로 검색하면 된다.

행사 컨셉에 맞춰 광주 OB맥주 공장에서 생산 된 다양한 프리미엄 생맥주(스텔라 아르투아, 한 맥, 카스, 카스제로)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현장에서는 실력파 뮤지션들의 라이브무대와 에너지 넘치는 DJ공연, 화려한 댄스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무대가 8월의 여름밤을 한층 뜨겁고 짜 릿하게 달굴 예정이다.

또 감성 플리마켓 '브리즈 마켓'에서는 '무등산 수박 커피'와 같은 지역 대표 식음료 브랜드를 비 롯해 조향상품, 목공예소품 등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전국에서 모인 푸드트럭에서는 맥주와 어울리 는 트렌디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스마트전자제품, 가족식사권, 전시회관람권 등 푸짐한 경품 이벤트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존도 마련된다.

올해 축제는 한층 시원하고 쾌적하게 운영하기 위해 쿨패치 등 방서용품 제공, 쿨링존 등이 운영 된다. 시간차 입장을 통한 대기시간 단축 등 관람 객 편의도 높였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사장은 "올해 비어페스트 광주는 맥주와 음악, 문화가 어우러진 낭만과 열정의 향연으로, 시민들이 마음껏 즐기며 행복을 느낄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맥주축제를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빛내줄 대표적인 광장축제로 발전시켜 사계절 축제가 넘치는 익사이팅 광주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이차전지 특화단지 협의체 발족…전남도, 광양만권 특화단지 지정 앞장

전남도가 광양만권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 지로 지정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하 기 시작했다.

전남도는 13일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여수·순천· 광양시,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특화단지 협의체' 발족식 및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해다

이날 회의는 지자체, 산업계, 학계·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민·관 공동 조직을 구성하고 광양만권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니켈 정제 공장을 통한 리튬 등 원료 확보가 가능하고 소재 정제 및 재활용까지 아우르 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광양만권을 을 특 화단지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에 건의한 상태다.

광양항의 글로벌 공급망 인프라, 여수·광양국가 산단의 철강·화학 기반 산업, 나주·광양 지역 재자 원화 실증 기반까지 갖췄고 최근 관련 규정(국토 부 산업입지기준) 개정으로 이차전지 등 신산업 업조 입주도 가능해져 경쟁력을 갖췄다는 게 전남 도 판단이다.

협의체는 이같은 점을 토대로 특화단지 지정의 필요성을 위한 논리를 강화하면서 산업계 수요 및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마련 등 연계 전략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차전지를 12대 국가전략기술·6 대 첨단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수세계섬박람회 본격 준비 나선다

9월 5일 D-365 행사

오는 9월 5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D-365 행 사가 열린다.

13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조직위는 지난 11일 여수엑스포컨벤션 센터 세미나실에서 '2025년 제4차 이사회'를 열 고 섬박람회 D-365 기념행사와 올 하반기 박람 회 조직위 주요업무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

이사회 의결에 따라 오는 9월 5일 여수세계박람 회장에서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1년 앞둔 기념 행사 준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세계 최초의 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오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간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여수세계

박람회장, 금오도, 개도 일대에서 펼쳐진다.

D-365 기념행사는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장권 판매를 시작하는 이벤트와 섬 박람회에 참 가하는 국내외 협약국 축하메시지, '위대한 섬의 약속, 오색 바다'에 대한 영상과 성공 개최 퍼포먼 스, 드론쇼 등으로 진행된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섬박람회 개막까지 남은 1년 동안 각 분야를 꼼꼼히 살피고 새로운 아이디 어를 적극 반영해 전 세계인이 찾고 싶어 하는 국 제행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i

